

배포일시	2019. 5. 28.(화) 10:00 (총 2매)	보도시점	2019. 5. 28.(화) 11:00
담당부서	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	담당자	과장 이은정 사무관 조경숙
		전화번호	02-2181-0392 02-2181-0393

**기후 정보서비스,
소통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**

- 기후변화 정책 지원을 위한 민·관 기후서비스 토론회(포럼) 개최 -

-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기후에 대한 폭넓은 소통과 기후변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, **5월 29일(수)**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올해 처음으로 ‘기후변화 정책 지원을 위한 민·관 기후서비스 토론회(포럼)’을 개최한다.
- 기후·기후변화 정보서비스 수요 도출을 위해 **6개 분과위원회***를 구성하고 해당 분과별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·공동연수(워크숍) 등 연 2회 이상 운영되며,
 - *6개 분과위원회: △기후감사·예측 △기후변화 감사·예측 적응 △해양기상
 △수문기상 △기후변화 예측(산업계) △해양기상(산업계)
- 전체 토론회는 사회 공론화 소통 주제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.
- 이번 ‘기후서비스 토론회’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.
- 위원장으로 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, △관계부처 △공공기관 △학계 △산업계 △민간(NGO) 위원 등 총 **46명**이 참석한다.

- 기상청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소통의 결과가 △기후·기후변화정보 서비스 개선 △기후변화 이해확산 등 기후·기후변화 정책으로 환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 - 특히, 기상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후·기후변화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해석하여 이번 토론회가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-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이번 토론회가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 이슈의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장이 되어, 국민의 삶과 기후가 조화롭게 접목된 기후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.” 라고 밝혔다.